

活用形の再分析에 의한 再構造化와 不明推論

김 현
(慶應義塾大学)

Kim, Hyun. (2002). An abduction and the restructuring by the reanalysis of conjugated forms. *Language Research* 38(3), 779-799.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a reanalysis so as to make it more available for the explanation of historical changes of verb stems. I suggest first that the logical base of a reanalysis should not be an analogy but an abduction. A synchronic grammar including phonological rules, morphophonological rules, and any regularity such as a vowel harmony would be “laws”(of deduction); surface forms would be “results”(of deduction). So from these laws and results the listener *abduces* a different underlying form (=“case” of deduction) from the speaker’s in the same synchronic grammar.

Key words: restructuring, reanalysis, abduction, synchronic grammar, rule, underlying form

1. 서론

小壯文法學者들의 음운론에 관한 관심은 대부분 개별 음운 또는 음성의 역사적인 변화에 집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그들의 논의는 음운의 體系에 대한 본격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단어들에서 보이는 일련에 대응에 따른 元素論的인 접근이었다. 이후 음운사가 음운체계의 변화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構造主義가 들어선 이후이며 Jakobson (1931)의 음운체계 변화 분류는 그 큰 결실이라 할 것이다.

이후 生成音韻論의 등장과 함께 기존 음운사 설명의 대안을 찾으려 노력한 결과 Halle (1962)에서는 음변화를 (공식적) 규칙의 添加(addition)로 해석하게 되었다. 그러나 규칙첨가만으로는 통시음운론적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Kiparsky (1965, 1968), King (1969) 등의 논의를 통해 규칙의 消失(loss)이나 單純化(simplification), 再配列(reordering) 및 再構造化(restructuring) 등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아갔다.1)

1) 그들은 철저하게 문법 즉 규칙 관계만을 중시하였으며 이전 전통문법에서 다루어지던 표면형은 경시하는 듯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Kiparsky(1971)에서 제안된 패러다임 조건(paradigm condition)이

그들의 재구조화는 현재 국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 즉 ‘基底形의 변화(방언연구회 편 2001 참조)’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공시적 규칙의 상정에 있어서 통시적 성격의 것을 그다지 엄중히 배제하지 않았던 시기였던 만큼 우리가 흔히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변화하지 않은 기저형과 추상적 규칙의 적용일 뿐이라고 여길 수가 있었던 것이다.²⁾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재구조화 역시 기저형의 변화를 의미한다. 공시적 생성음운론의 핵심적 개념은 기저형과 규칙에 의한 도출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통시적 연구 역시 규칙 부문의 변화와 더불어 기저형의 변화에도 절반의 관심을 가져야만 생성문법 내에서의 통시음운론이 완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기저형에 변화를 가져 오는 요인에는 음변화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가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표면형의 재분석에 의해 기저형이 변화를 겪게 되는 과정으로서 많은 논의에서 유추의 한 부류라고 여겨지고 있는 현상이다.

再分析(reanalysis)이란 metanalysis라는 용어로 이미 Jespersen (1922, p. 173)에 ‘단어 또는 단어의 연쇄를 새로운 세대가 이전 시기의 분석과는 달리 분석하는 현상(밀줄 필자)’으로 소개된 바 있다. 국어의 현상에 대하여는 ‘잘못 분석’이라는 용어(허용, 1965; 배주채, 1991 등) 또는 ‘오분석’이라는 용어(곽충구, 1994 등)로 서술된 바 있지만, 접두사 meta-의 의미는 “誤”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한 용어였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³⁾

본고의 목적은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가 유추가 아닌 不明推論(abduction)에 논리적 근거를 둔 현상임을 보이고, 변화의 개념을 정밀화하려는 데에 있다. 이에 앞서 불명추론뿐만 아니라 연역추론과 귀납추론 역시 음운부문 내에서 표면형을 도출한다든지 규칙이나 기저형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적절히 응용될 수 있음을 논 의할 것이다.

불명추론이 언어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용된 것은 주로 Henning Andersen과 Raimo Anttila에 의해서이다. 특히 Andersen은 규칙의 적용 양상에 따른 기저형

나 규칙의 透明性(transparency) 등의 원리들은 Hock (1986, p. 260, 267)의 평가와 같이 결국 표면형을 중시할 수밖에 없음을 시인한 셈이 된다. 생성문법에 바탕을 둔 본고에서 표면형인 활용형을 적극 활용함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언어 변화는 문법과 그것이 실현된 실제언어를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Kiparsky, 1974 참조).

2) Kiparsky의 재구조화에 대한 생각은 Kiparsky (1970, 1982, p. 53)의 다음 언급에 잘 드러나 있다. “Restructuring, however, differs from simplification in that it involves no actual change in the language, but merely the substitution, for an unnecessarily complex grammar arising through the addition of a new rule, of a simpler grammar which generates the same language.”

아울러 Kiparsky는 문법의 변화라는 측면을, King은 기저형의 변화라는 측면을 보았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3) 다만 곽충구(1994)의 ‘오분석’ 용어 사용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로 들고 있는 ‘파-(伸)⇒피’, ‘켜-(點火)⇒키’는 ‘-어’가 결합한 /피/와 /켜/를 ‘피+-어’, ‘키+-어’로 분석한 결과라 하고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誤分析이라 여겨진다. ‘피+-어’, ‘키+-어’로 분석될 수 있는 활용형은 長音을 지닌 /피:/, /켜:/이지, ‘피+-어’, ‘켜+-어’에서 도출된 短音의 /피/, /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의 변화를 논의(1969)할 때나 음변화를 논의(1973)할 때, 나아가 언어변화를 분류(1974)하는 데에 있어서 불명추론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불명추론의 개념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이미 주어진 결과와 대전제를 바탕으로 소전제를 추론하는 과정의 논리적 불확실성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3절에서는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이 표면형의 도출 과정이나 규칙과 기저형의 습득 과정에 어떠한 논리적 바탕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살피며 4절에서는 활용형의 재분석이 유추가 아닌 불명추론이라는 기제에 의한 것임을 제안할 것이다. 5절은 지금껏 엄밀히 규정되어 오지 않은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의 성격을 분명히 하는 데에 할애할 것이다.

2. 불명추론의 개념

주지하듯 연역추론이란 대전제와 소전제가 주어지고 이로부터 결과를 이끌어 내는 추론을 말하며, 귀납추론이란 소전제와 결과로부터 대전제를 이끌어 내는 추론을 말한다.

- (1) 大前提(law) : 사람(A)은 죽는다(P).
 小前提(case) : 소크라테스(a)는 사람(A)이다.
 結果(result) : 소크라테스(a)는 죽는다(P).

對象A는 특정한 個體가 아닌 部類의 개념이며, 여기에 述語P가 결합하여 대전제가 이루어지며, 소전제는 특정한 개체a가 대상A의 한 예임을 밝힌다. 이를 매개로 하여 특정한 개체가 술어와 결합된 것이 결과라고 할 것이다.

결과를 추론해 내는 연역, 대전제를 추론해 내는 귀납 이외에 주어진 대전제와 결과를 이용하여 소전제를 추론해 내는 과정도 있을 수 있다. 즉 '사람은 죽는다'는 사실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추론은 전제가 되는 두 사실이 참이라고 해서 추론된 결론만이 참임을 보장하지는 못하며, 다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뿐이다. Charles S. Peirce의 不明推論(abduction)이 바로 그것이다.

- (2) 놀라운 사실 C가 관찰되었다.
 그런데 만일 A가 참이라면 C는 당연히 참이다.
 따라서 A가 참이라고 여길 이유가 있다.

'C가 관찰되었다'는 것은 특정한 개체와 관련된 사실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A가 참이라면 C가 참'이라는 전제 역시 이미 주어졌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A가 참일 수도 있음'을 추론한 것이다.

귀납이나 연역과 대립되는 불명추론의 중요한 특징은 추론의 불명확성이다. 연역에서는 대전제와 소전제가 참이면 그로 인하여 추론된 하나의 결과만이 참이 되고, 귀납에서는 소전제와 결과가 참이면 그로 인하여 추론된 하나의 대전제만이 참이 되지만, 불명추론은 (2)의 ‘~라고 여길 이유가 있다(there is reason to suspect that~)’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제가 참이라고 해도 그로 인해 얻어진 결론만이 참이라는 논리적 보장을 할 수가 없다. 바로 이 점이 불명추론의 기본 개념이라 할 것이다.4)

(1)과 (2)를 대응시키면, ‘소크라테스가 죽었다’는 것은 (2)의 사실C가 될 것이다. (2)의 A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일 수도 있고, ‘식물은 죽고, 소크라테스는 식물이다’일 수도 있는 것이다.

(3)	C	A
	소크라테스가 죽었다.	사람은 죽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식물은 죽고, 소크라테스는 식물이다. ⋮

A가 참이라면 C 역시 반드시 참이기 때문에 A가 참이라고 여길 만한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참이라 여길 수 있는 A는 한 가지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연역, 귀납의 추론 결과와는 다르다. 또한 A의 ‘사람/식물은 죽고’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식물이다’는 (1)의 관점에서 보면 각각 대전제와 소전제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둘을 각각 추론해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쌍의 ‘대전제+소전제’를 추론해 낸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며, 바로 이 점에서 귀납과 유사하기도 하면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된다.

결과인 ‘소크라테스가 죽었다’와 대전제인 ‘사람은 죽는다’가 주어졌다고 할 때,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라고 추론한다면 이 역시 일종의 불명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아닌 것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추론은 여러 가능한 결론 중의 하나를 이끌어 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3. 음운 부문에서의 추론

3.1. 표면형 도출

공시적 규칙과 기저형을 토대로 하여 표면형을 도출해 내는 과정은 연역추론이

4) abduction의 번역을 굳이 歸推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분명 귀납과도 유사와도 비슷한 면이 없지 않으나, 불명확성을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라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귀납의 경우 모든 결과를 또는 그들의 모든 부류를 추론 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적절하지 못한 대전제를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의 부정확성은 불명추론의 불명확성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 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鼻音化의 규칙 구조 ‘폐쇄음 → 비음 / ___ 비음’은 풀어 쓰면 ‘비음 앞의 폐쇄음은 비음으로 바뀐다’로 진술될 것이다. ‘비음 앞의 폐쇄음’이란 어떤 특정한 개체 즉 특정한 단어 또는 형태소 결합에서의 특정 음운의 연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반화한 部類의 개념이다. 즉 연역추론의 대전제의 對象((1)의 A)이라 할 것이며, 규칙의 構造分析(structural analysis)에 해당될 것이다. ‘비음으로 바뀐다’고 함은 그 대상에 대한 述語((1)의 P)이자 규칙의 構造變化(structural change)가 된다. 다시 말해 규칙은 이와 같이 ‘어떠한 부류는 어떠한가’는 대전제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部類’의 개념은 규칙에 一般性(generality)을 부여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 음운론의 기술에서 간혹 잘못 도입되는 규칙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ㅂ 변칙 어간의 발음을 ㅂ으로 설정하고 이 ㅂ이 모음 사이에서 w로 바뀐다는 규칙을 상정한다고 할 때, 그 규칙은 모든 ㅂ 발음의 어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어간들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규칙의 일반성 또는 規則性(regularity)을 해침과 동시에 연역추론의 관점에서 보면 부류의 개념만으로 서술되어야 할 대전제에 특정 개체를 포함하게 하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규칙이라 할 수가 없다.⁵⁾

다른 예를 들어 보자. 만일 {살-(生)}의 활용형 ‘사오니’에 대하여 ㄹ 발음 용언이 {-오니} 등의 어미와 결합할 때에 ㄹ이 탈락한다는 규칙을 상정한다고 할 때, 그 규칙은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4) \quad ㄹ \rightarrow \emptyset / _]v.st. + \{-오니\} \dots$$

이 규칙을 풀어 쓰면 ‘용언 어간 발음이면서 {-오니} 등의 형태소와 결합하는 ㄹ은 탈락한다’로 진술될 것이다. 우선 述語인 ‘탈락한다’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ㄹ이라는 것도 특정 형태소의 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며, ‘용언 어간 말’이라는 것 역시 특정 형태소와는 무관한 形態論的인 範疇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오니} 등의 형태소’라는 진술은 특정한 個體, 특정한 형태소를 가리키기 때문에 추론의 대전제로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特定 個體性(idiosyncrasy)을 배제하여야만 규칙의 일반성을 확보할 수 있다.⁶⁾

5) 규칙성을 잃은 규칙은 다음과 같이 서술될 것이다.

ㅂ → w / ___](ㅂ-, (ㅂ-) 등 + 모음

물론 이처럼 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각각의 어간에 규칙자질로 명시할 수도 있다. 그 경우 규칙 자체는 부류로 기술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6) 복수 기저형을 설정하고 각각이 선택되는 조건에 특정 형태소가 언급되는 경우(배주채, 1998, p. 125의 ㄹ 발음 어간의 기저형 선택 조건)가 있는데, 만일 그러한 조건에까지 특정개체성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사오니/와 같은 경우는 활용형 전체가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한편 규칙이 일반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소수 예외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수의 존재가 進化(evolution)의 과정에 나타난 것이라면 얼마든지 예외 또는 語彙的 擴散의 개념을 받아들일 수 있다.

대전제가 일반적 진술이라면, 소전제는 특정한 個體가 대전제의 對象에 속하는 것임을 밝혀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표면 도출 과정의 면에서는 결합된 특정 형태소들의 음운적·문법적인 정보가 규칙의 구조분석을 만족시킴을 보임으로써 규칙이 적용되고 표면형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5) 평장애음 → 경음 / 비음 [v.st. + _]ending

용언 어간말의 비음 뒤에 있으면서 어미의 두음인 평장애음은 경음으로 바뀐다.

규칙 (5)는 용언 어간말 비음 뒤의 硬音化이다. ‘용언 어간말, 어미’는 형태론적인 정보를, ‘비음, 평장애음, 경음’은 음운론적인 정보를 표시한 것으로서, 규칙의 일반성을 유지하고 있다. 발화시의 특정한 형태소의 결합, 예를 들어 {안-抱}과 {-고}의 결합은 음운론적인 정보에 있어서 비음과 평장애음의 결합이라는 구조분석을 만족시키며, 형태론적인 정보에 있어서 선행하는 비음은 용언의 어간말음이며 후행하는 평장애음은 어미의 두음이라는 구조분석을 만족시킴으로써 연역추론의 소전제 역할을 한다. 바꾸어 말하면, 특정한 형태소의 음운론적 정보 즉 기저형이 //안//과 //고//이며⁷⁾ 이들의 형태론적 정보 즉 각각이 용언 어간과 어미라는 사실을 명시하는 것 자체가 연역추론에서의 소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전제와 소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결과인 /안꼬/가 추론되는 과정이 발화의 과정이자 연역추론에 의한 결론인 셈이다. 연역의 추론 과정을 빌어 다음과 같이 진술될 수 있다.

(6) 대전제 : 용언 어간말의 비음 뒤에 있으면서 어미의 두음인 평장애음(A)은 경음으로 바뀐다(P).

소전제 : //안+고//의 ㄱ은(a) 용언 어간말의 비음 뒤에 있으면서 어미의 두음이다(A). 즉 결합되는 두 형태소의 기저형은 //안//과 //고//이고 이들 각각은 용언 어간, 어미이다.

결과 : //안+고//의 ㄱ은(a) 경음으로 바뀐다(P). 즉 /안꼬/로 실현된다.

이와 같이 연역추론의 대전제, 소전제, 결과를 각각 규칙, 기저형, 표면형에 대응시킴으로써 표면형 도출 과정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류와 개체의 개념을 통해 규칙의 일반성에 대한 근거를 모색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극단적 구체음운론에서 지양하고 있는 규칙 내의 형태론적 정보도 그것이 부류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된다.

7) // //는 기저표시임을 나타내기 위한 부호일 뿐, 형태음소라는 단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유 의 층위와 제약을 지니지 못한 단위는 인정할 수 없다(Goldsmith, 1993 참조).

3.2. 규칙·기저형 습득

규칙과 기저형은 不可分의 관계에 있다. 규칙을 달리 상정하면 기저형도 달라질 수 있으며 그 반대 역시 마찬가지이다. 언어를 학습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대체로 표면형들로부터 규칙과 기저형을 함께 습득하게 된다.

- (7) 결과 : /머거, 명는/ /이버, 입는/ /어더, 언는/ /아나, 안는/ /사마, 삼는/
 소전제 : ① //떡+어// //떡+는// ... //안+아// //안+는//
 ② //명+어// //명+는// ... //안+아// //안+는//
 대전제 : ① 비음 앞의 폐쇄음은 비음으로 바뀐다.
 ② 모음 사이의 비음은 폐쇄음으로 바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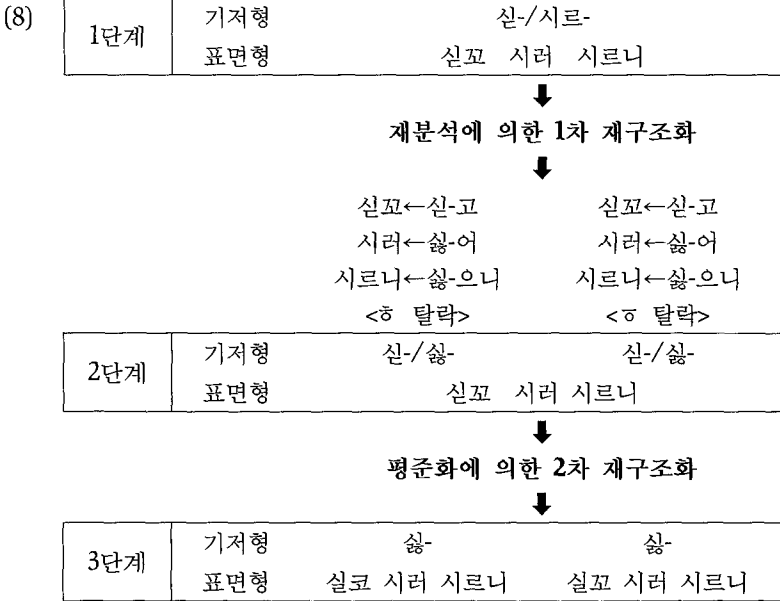
결과가 주어졌을 때 언어학습자는 소전제①+대전제①을 불명추론에 의해 추론할 수가 있다. 주어진 결과는 참이고, 소전제①+대전제①이 참이라면 결과는 반드시 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명추론은 가능하며 소전제①+대전제①이 참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게 된다.

한편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언어학습자는 소전제②+대전제②를 추론할 수도 있다. 이 역시 불명추론에 의한 것이지만 추론된 소전제②+대전제②에 기반한 연역추론 즉 표면형 도출의 결과가 거짓(/^x아다, 안는/을 도출)이 되고 말기 때문에 또 다시 추론 과정을 겪어야 한다.

결국 소전제①+대전제①을 추론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추론 과정이 불명추론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추론의 논리적 명확성이다. 주어진 자료에 대해서 //떡//, //안// 등의 기저형과 비음화 이외의 어떤 것도 참인 결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추론의 출발은 불명추론이겠지만 추론된 규칙과 기저형이 올바른 표면형을 도출하는지 스스로 점검하기도 하고, 이전 세대의 다른 표면형들로부터 계속하여 규칙과 기저형을 확인해 나가기도 하는 것이다(McMahon, 1994, p. 94 참조).

4. 활용형의 재분석과 불명추론

국어 용언 어간 중에는 聽者(또는 제2세대)가 話者(또는 제1세대)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활용형을 분석함으로써 어형이 변화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다(곽충구, 1994; 배주채, 1998, p. 87; 임석규, 1999, p. 27; 拙稿, 2001; 장윤희, 2002 등 참조). 예를 들어 '신-/시르-(載)'가 '싫-'이나 '싫-'로 변화한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은 것으로 생각된다.



1단계는 재구조화가 일어나기 전 자음 앞의 ‘싣-’과 모음 앞의 ‘시르-’라는 두 개의 기저형(최명옥 1985)이 설정된 상태이다. 2단계의 모든 표면형(싣꼬, 시러, 시르니) 및 자음어미와⁸⁾ 결합된 기저형(//싣-//)은 1단계와 동일하지만 모음 앞의 기저형(//시르-// 對 //싣-, 싣-//)은 달리 설정되어 있다. 즉 ‘싣-/시르-’의 표면형 /시러, 시르니/ 등을 각각 ㅎ 탈락 또는 ㅎ 탈락이 적용된 것으로 재분석하고 재분석된 어간을 다른 어미와의 결합에까지 아직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복수 기저형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2단계의 복수 기저형인 ‘싣-/싣-’ 및 ‘싣-/싣-’이 각각 ‘싣-’, ‘싣-’로 平準化(leveling)된 것이 3단계로서, 표면에 변화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는 2단계에서 이미 일어난 것이다.⁹⁾

활용형 /시러, 시르니/가 ‘싣+어, 싣+으니’나 ‘싣+어, 싣+으니’로 분석 가능한 것은 이미 국어에 ㅎ 탈락이나 ㅎ 탈락이라는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Jeffers (1977, p. 19)에서 굴절형을 재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접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와 유사한 분석이 이미 다른 예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반드시 전제하여야 함을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서, 재분석의 중요한 필요조건이 된다.

8) 편의상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자음어미’, ‘어/아’로 시작하는 어미를 ‘모음어미’, ‘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배개모음어미’라고 부르기로 한다.

9) 제주도의 젊은 층에서는 {간-(步)}이 /거르지, 걸지/로도 실현된다고 한다(정승철, 1995, p. 181). 이들 각각이 ‘거르-’와 ‘걸-’로의 재구조화를 의미한다면, 전자는 이전의 복수 기저형인 ‘견-/거르-’가 평준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후자는 장음의 /^h걸:지/로 나타나지 않음을 볼 때 모음어미 결합형 /거르/를 /걸+어/로 분석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분석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허용(1965, p. 519) 이후 대체로 재분석을 유추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적어도 국어 용언 어간의 재구조화와 관련하여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유추에 比例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문법적·의미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형식들이 그 유사성으로 인해 음운적·음성적으로도 동일 또는 유사해지는 현상”이라는 Hock (1986, p. 167)의 정의는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¹⁰⁾ 위의 재구조화를 유추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비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9) “厭” 시러, 시르니 : 실코 = “載” 시러, 시르니 : X(= 실코)

이는 앞서 제시한 (8)의 재구조화 과정보다 매우 간결해 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것이다. (8)은 기저형의 변화를 설명한 것인 반면 (9)는 전통 문법에서 기저형과는 무관하게 자음어미 결합형의 산출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9)의 변화 이후 기저형에까지 변화가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고 하여도 몇 가지의 중대한 문제가 뒤따른다.

첫째, /시러, 시르니/“厭”와 /시러, 시르니/“載”의 유사성에 의해서 /실코/“載”가 발화된다고 할 때, 두 항목의 유사성이란 것이 ‘문법적·의미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점에서 문법적으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적어도 Hock (1986)의 정의에 따르면 유추라고 할 수가 없게 된다.

둘째, 다른 의미를 지닌 ‘싫-’이라는 어간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한 (9)는 ‘싫-’로의 변화는 전혀 설명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듣-(聽)’, ‘걸-(步)’ 등도 ‘들-, 들-, ‘끓-, 끓-’로 변화될 유추의 근거가 될 기존의 어간이 없다. 물론 /V₂ V/이라는 틀을 형성하여 이에 유추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ㅎ 탈락, ㅎ 탈락이 공식적 규칙으로 존재하는 이 경우에 한하자면, 유추의 틀이란 규칙을 용어만 바꾸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¹¹⁾

셋째는 비례의 각 항목에 위와 같이 활용형을 놓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유추의 비례항목을 어떻게 성격짓느냐의 문제이며 이를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어휘부에 저장되지 않는 활용형들간의 유사성을 인식하여 유추에까지 이른다고 할 만한 문법틀 전반을 우선 마련하지 않는다면 설득력이 떨어지리라 생각된다.¹²⁾

10) 본고에서의 유추란 認知言語學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것(similarity-based reasoning)이 아니라 전통적인 언어학에서의 좁은 의미의 것을 뜻한다. 유추를 넓은 의미로 쓸 수 있는 문법에 대해 필자는 아직 알지 못한다.

11) 생성문법의 음운규칙 전반을 부정하고 유추로 설명하려는 논의에 대하여는 Anttila (1977) 참조. 한편 공식적 규칙이 아닌 단어형성과 관련하여서는 유추의 틀이 오히려 설명력이 있다(채현식, 2000 참조).

12) 영어의 “boot : boots = foot : X(= foot)”는 유추의 각 항목이 복수형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곧

이처럼 재분석을 유추의 일종으로 간주할 근거는 빈약하다. 그러나 어형은 분명히 변화였고 음변화와는 무관하다. 본고는 이를 불명추론에 의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앞서 (3)에 제시한 불명추론의 공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3')	C	A
표면형	/시러, 시르니/	① ㅎ 탈락 규칙이 존재하고, <대전제> 기저구조 //싫+어, 싫+으니//는 ㅎ 탈락의 구조분석을 만족시킨다. <소전제> ② ㅎ 탈락 규칙이 존재하고, <대전제> 기저구조 //싫+어, 싫+으니//는 ㅎ 탈락의 구조분석을 만족시킨다. <소전제> ③ — 탈락 규칙이 존재하고, <대전제> 기저구조 //시르+어, 시르+니//는 — 탈락의 구조분석을 만족시킨다. <소전제>

C라는 주어진 사실에 대하여, A가 참이라면 C는 반드시 참이 된다. 즉 기저구조가 //싫+어, 싫+으니//나 //싫+어, 싫+으니//라면 그 표면형은 반드시 /시러, 시르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싫+어, 싫+으니//나 //싫+어, 싫+으니//와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면, 다시 말해 기저형이 ‘싫-’이나 ‘싫-’이라면 기존의 규칙에 의해 /시러, 시르니/가 도출될 수밖에 없음을 말한다. 따라서 A가 참이라고 여길 만한 이유가 있다. ①②③은 어떤 대전제와 어떤 소전제가 짝을 이루는가의 차이일 뿐이며, 모음 앞의 기저형이 ‘싫-’일 수도 있다는 것은 그 밖에 ‘싫-’일 가능성도 있고, 변화되지 않은 채 ‘시르-’일 가능성도 있어서 반드시 그것만이 참이 아님을 의미, 불명추론의 “불명확성”을 잘 보여 준다.

결국 불명추론에 의해 추론된 것은 기저구조 //싫+어, 싫+으니// 또는 //싫+어, 싫+으니//일 뿐, ㅎ 탈락 규칙과 ㅎ 탈락 규칙의 대전제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추론에 의해 이와 같이 재분석하였다고 함은 그 순간 이미 그 기저형이 ‘싫-/시르-’가 아니라 ‘싫-/싫-’ 또는 ‘싫-/싫-’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것들과 비슷하게끔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유추와 흡사히 여겨질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단어들 또는 그들이 이루는 유추의 틀을 통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식적 규칙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추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또한 (8)에서 재분석에 의한 1차 재구조화의 결과(2단계)가 직접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고 변화 이전과 마찬가지로 /싹꼬, 시러, 시르니/로 나타난다는 점 역시

이 이러한 비례식이 아니더라도 모음교체(ablaut), -ren, -a 등과 같은 복수접미사의 여러 형태들 또는 보충법적 복수형들을 “複數”라는 의미적 공통성 아래에 동일한 음성형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추라 할 수 있다. 과거형이 -ed로 평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전형적인 불명추론에 의한 변화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Andersen (1974, p. 23)에서 논한 바와 같이 불명추론적 변화는 그 뒤에 연역적 改新(deductive innovation)이 뒤따르고서야 비로소 관찰된다. 그는 중세 영어의 집합명사인 *cheris“cherry”가 복수인 cheri+s로 분석되는 자체를 불명추론적 개신, 그렇게 분석된 cheri가 cheris를 대신하여 나타나고 cheris는 복수 동사와 함께 쓰이게 되는 현상을 연역적 개신이라고 하고 있다. 일종의 유추로서 문법 내의 계열적 관계에 기반한 擴張(extention)도¹³⁾ 연역적 개신에 속하기 때문에(Andersen, 1974, p. 25), (8)에서 2차 재구조화의 요인이 된 평준화 역시 연역적 개신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5.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의 개념 규정

재구조화의 한 기제로서 재분석이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그 논리적인 배경이 분명치 않았다는 점과 어떠한 현상까지를 이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하는 성격 규정이 미흡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앞서 우리는 재분석이 불명추론이라는 논리적 배경을 지니고 있음을 논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재분석의 제반 조건들을 정리함으로써 그 개념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5.1. 재분석 가능성:

재분석이 공시적 규칙 또는 규칙성에 의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는 어떠한 표면형이 새로이 분석되는 것이 공시적으로 자연스러워야 함을 뜻한다. 재분석의 과정을 보면, ①도출과정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고, ②규칙이 적용되어 도출된 표면형을 아무런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0) ㄱ. 섞-(混) ⇒ 서끄- 모음어미 결합형 /서꺼/ × ≧ _ 탈락
 ㄴ. 뿌-(基) ⇒ 떠- 모음어미 결합형 /떠/ 활음화, 활음탈락 ≧ ㄱ 탈락
 ㄷ. 나누-(分) ⇒ 난- 모음어미 결합형 /나나/ 활음화, 활음탈락 ≧ ×

13) 유추적 평준화와 유추적 확대(extention 또는 polarization)에서의 평준화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의 확대보다 넓은 의미로 쓰인 것이다. 평준화와 확대에 관하여는 Jeffers (1974, p. 245), Bynon (1977, p. 35) 등을, 이들에 대한 생성문법적 해석은 Kiparsky (1968, 1982, p. 41) 참조.

14) 한편 불명추론적 변화 자체가 일종의 유추라고 간주되기도 하는데(McMahon, 1994, p. 96), 본고는 이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다. 유추의 기본적인 개념인 類似性이나 比例가 불명추론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₇)은 주로 반도 서부에서, (L)은 동남 일부에서, (C)은 전남 일부에서 보고 되는 어형 변화이다.¹⁵⁾ ①은 (7)과 (L)의 두 경우를 아우른다. 전자는 도출 과정에서 아무 규칙도 적용되지 않은 것을 어떠한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한 것이며, 후자는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규칙과는 다른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C)은 도출 과정에서 적용된 규칙을 모두 무시한 분석으로 ②에 해당된다. 이 모든 재분석에 있어서 공시 문법을 거스른 것은 없다. /서겨/는 얼마든지 '서끄+어'에 1 탈락이 적용된 결과로 분석될 수 있으며, /떠/는 '떠+어'에 1 탈락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그리고 /나나/를 아무 규칙이 적용되지 않은 '난+어'로 분석하는 것 역시 공시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재분석 과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반드시 공시적 규칙에만 한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모음조화는 공시적 규칙으로 인정되기는 힘들지만 한 방언 또는 지역어 내에서는 일정한 규칙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 역시 재분석의 과정에서 긍정적·부정적으로 관여할 수가 있다.

앞서 (10_C)에서 만일 해당 지역에서 어간모음이 1이고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언제나 모음어미 '-어X'와만 결합한다면, /나나/는 '난+어'로 재분석될 수가 없을 것이다. 假想的 어간 '난'은 '-어X'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앉-(坐)⇒안지'의 변화에서 '앉+어'에서 도출된 /안자/가 '안지+어'로 재분석될 수는 없다는 점도 모음조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볼 수 있다. 국어의 어떤 방언에서도 '안지'와 같은 가상의 어간이 모음어미 '-어X'를 취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¹⁶⁾

모음조화는 재분석에 적극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북 해안 및 경남의 인접지역인 울주, 양산에서는 '쏘-(射)⇒쑈'와 같은 재구조화가 관찰된다.¹⁷⁾ 해당 지역은 ㄴ 발음 어간뿐만 아니라 ㄷ 발음의 1음절 어간에도 모음어미 '-어X'가 결합되는 성향이 강하여 '수(粥)+어→쇠'와 같은 모음조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¹⁸⁾ '쏘+어'에서 도출된 /쑈/가 얼마든지 '쑈+어'로 재분석될 수가 있다. 물론 그러한 모음조화를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는 그러한 재구조화, 적어도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5.2. 재분석되는 단위:

재분석되는 단위는 형태소이다.

15) ≫는 변화 이전과 이후 적용되는 규칙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16) 전설모음화가 적용된 매개모음어미 결합형 /안지니(앉+으니)/가 '안지+니'로 재분석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앉+어'에서 도출된 /안저/가 '안지+어'로 재분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17) 최명옥(1982, p. 38)에서는 ㄴ>ㄷ 상승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어두의 변화는 이들 용언 어간에만 국한되므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

18) 경북 지역 형태소 경계의 모음조화에 대해서는 최명옥(1992)를 참조할 수 있다.

청자에 의해 재분석된 각각의 단위는 어떠한 문법적 지위를 지니는가. 표면형을 이루는 각 단위가 의미적·문법적 기능을 지녔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단순한 음연쇄 이상의 지위를 지녔음에는 분명하다. 문제는 분석된 각각의 形態素인가 그 異形態인가에 있다.

(8)에서 어간으로 재분석된 단위인 ‘싫(載)’은 형태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異形態(allomorph)일 뿐이라고 여길 수도 있다. 형태소라 함은 분석된 ‘싫’이 기저형임을 뜻하며, 이형태라 함은 그것의 표면형임을 뜻한다. 만일 후자를 좇아 (매개)모음어미 결합형에서 재분석된 ‘싫’을 하나의 이형태로, 자음어미 앞의 ‘실’을 또 다른 이형태로 인식한다면, 이 두 형태는 상호 공시적 도출관계가 불가능한 까닭에 복수 기저형 ‘실-/싫’로 기억될 것이다. (8)에서 2단계의 기저형을 복수 기저형으로 설정한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분석된 ‘싫’은 이형태일 수가 없다. ‘먹(食)’의 활용형 /명는/의 어간 이형태가 /먹/이 아닌 /명/인 것과 같이, 이형태란 형태소가 실현된 교체형으로서 생성문법적 견지에서 보면 모든 음운과정이 적용된 이후의 형태를 말하는데 ‘싫’은 결코 표면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분석된 ‘싫’은 후음탈락이라는 음운과정이 적용되기 이전의 상태 즉 기저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¹⁹⁾

한편 재분석된 단위가 형태소가 아니라면 (10ㄱㄴ)은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라고 설명할 수가 없게 된다. 이들이 (8)과 차이를 보이는 점은 활용형을 분석할 때에 적용되었다고 여긴 규칙이 후음탈락과 같은 音韻規則이 아니라, 형태론적인 조건을 요구하는 — 탈락, ㅏ/ㅓ 탈락이었다는 것이다.²⁰⁾ 形態音韻規則 — 탈락은 ‘어간말음 —는 모음 앞에서 탈락한다’로 진술될 것이며, 활용형 /서꺼/는 이 규칙에 의해 ‘서끄’와 ‘어’로 재분석된다. 이 때 분석된 ‘서끄’의 —는 규칙의 구조분석에 진술된 바와 같이 ‘어간말음 —’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서끄//가 어간의 음운 표시 즉 기저형임을 함의하는 것이다.

재분석에 응용된 규칙이 음운규칙이고 분석된 두 형태가 (8, 10)과는 달리 상호 공시적 도출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체언 ‘흙(土)⇒후’의 재구조화가 그러하다. 이 변화는 전통문법의 관점에서 평준화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보면 단일한 기저형에 자음단순화나 비음화 등 공시적 음운규칙들이 적용된 이 형태들(흙~후~홍)을 평준화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기억하기 쉬운 단일

19) 앞서 소전제는 특정 ‘형태소’가 대전제인 규칙의 조건을 만족시키는가 하는 것이었지 특정 형태소의 ‘이형태’가 그러한가 하는 진술은 아니었다.

20) {긔(罰)}의 활용형 /긔어/에서의 — 탈락, {짚(稻)}의 활용형 /짜아/에서의 ㅏ 탈락은 음절감소에 의한 報償的 長母音化를 동반하는 隨意的 음운규칙인 반면, {크(大)}의 활용형 /커/에서의 — 탈락과 {싸(漑)}의 활용형 /싸/에서의 ㅏ 탈락은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에 장모음화 없이 必須的으로 적용되는 형태음운규칙으로 본다. 후자의 규칙은 비록 /— ㅏ/, /ㅏ ㅏ/의 연쇄가 부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연쇄를 피해야 할 이유도 아닐 뿐더러, 음절감소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음운규칙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교체의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을 자동적 교체라 한다고 해도, ㅏ 앞에서의 용언 어간말 ㅏ 탈락과 같이 자동적 교체 중에서도 형태론적인 조건을 지닌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Hudson, 1980 참조).

한 기저형과 음성적 동기를 지닌 음운규칙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중세국어에는 음절말에 *리*가 발음될 수 있었지만 현재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음절구조계약이 통시적인 변화를 겪은 것이며, 자음군단순화라는 공식적 규칙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자음군단순화는 기저의 //흙//이 /혹, 흥/으로 발음하게 할 뿐 기저형의 변화 ‘흙⇒혹’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흙’의 재구조화는 다음과 같이 단독형과 자음 앞 형태의 재분석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1) 화자		발화	청자	
기저형	규칙		기저형	규칙
//흙//	자음군단순화 비음화	/혹/	//혹//	×
//흙+도//		/혹또/	//혹+도//	
//흙+이//		/흙기/	//흙+이//	×
//흙+만//		/흙만/	//혹+만//	비음화

표면형 /혹, 혹또/의 기저구조는 //혹, 혹+도//로, /흙만/의 기저구조는 //흙+만//으로 재분석된 후 청자의 형태소 {“土”}의 음운표시는 모음 앞에서는 //흙//, 그 밖의 환경에서는 //혹//의 둘로 저장된다.²¹⁾ 이러한 기저형과 그 선택 조건은 얼핏 이형태와 그 출현 환경인 듯해 보이지만, 이형태 /흙/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를 보인다(11'ㄱ 비교).

(11') ㄱ. {흙/혹(土)}의 기저형과 선택 조건

//흙// : 모음 앞 //혹// : 그 밖

ㄴ. {흙(土)}의 이형태와 출현 환경

/흙/ : 모음 앞 /흥/ : 비음 앞 /혹/ : 그 밖

만일 재분석된 ‘혹#’, ‘혹+도’가 이형태 차원의 것이라면, 이 ‘혹’과 모음 앞 이형태 ‘흙’은 공식적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1'ㄱ)과 같이 복수 기저형이 될 이유 없이 단일한 기저형 //흙//으로 설정될 것이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1'ㄱ)의 복수 기저형은 나아가 연역적 개신인 //혹//으로의 평준화 이후 비로소 ‘흙(⇒흙/혹)⇒혹’의 변화가 완성된다. 이처럼 재분석된 단위가 형태소라고 규정하고 서야 ‘흙⇒혹’을 생성문법의 틀 안에서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로 해석할 수가 있다.

21) 언어사용자는 언어학자가 생각하는 대로의 ‘충명한’ 문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Hale (1973), Kiparsky (1974)의 Maori語 분석 참조.

5.3. 음변화와의 관계:

변화 전후의 공시 문법은 동일하다. 즉 재분석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음변화는 音韻體系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音素配列制約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후의 활용형이 이전과는 다른 기저형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재분석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음변화에 의해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음운체계에 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전과는 다른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예로서 ㅃ 말음 어간의 변화를 생각해 보자.

(12)	1단계	기저형	꺠-		
		표면형	꺠고	꺠뵤	꺠뵤니
음변화 : 꺠칙(ㅃ → w) 첨가					
	2단계	기저형	꺠-		
		표면형	꺠고	꺠위	꺠우니
음변화 : 음운체계 내 ㅃ 소실					
3단계	표면형	꺠고 꺠위 꺠우니			
		분석①	분석②	분석③	
		꺠고←꺠고	꺠고←꺠고	꺠고←꺠고	
		꺠위←꺠우어	꺠위←꺠우어	꺠위←꺠우어	
	꺠우니←꺠우니	꺠우니←꺠우니	꺠우니←꺠우니		
기저형	꺠/꺠우	꺠/꺠우	꺠/꺠우		

1단계는 ㅃ이 표면에 나타난 15세기 중엽을, 2단계는 비록 {꺠(ㅃ)}의 활용에는 ㅃ이 실현되지 않지만 여타 어간 또는 {-ㄷㅃ-} 등의 접사 따위에 아직 ㅃ이 실현되어 음운체계 내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후 ㅃ이 음운체계에서 완전히 소실된 다음의 기저형은 //꺠//일 수가 없게 되고, 언어사용자는 기존의 활용형을 분석하여 새로운 기저형을 설정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러한 분석이 분석①②③이며 그 결과 화자는 ‘꺠/꺠우’, ‘꺠/꺠우’, ‘꺠/꺠우’이라는 기저형을 기억하게 된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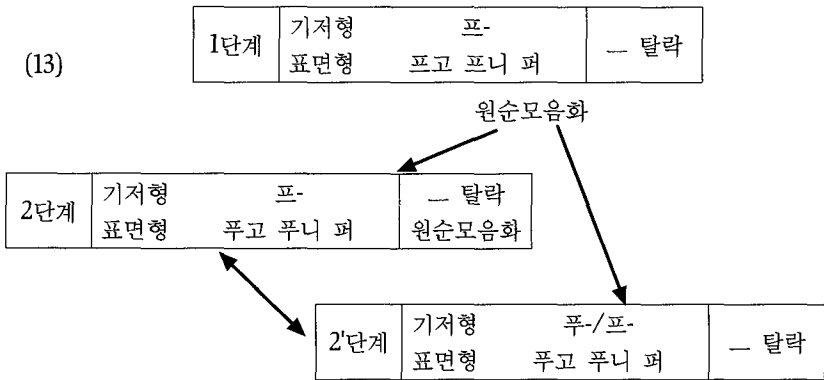
2단계의 기저형과 3단계의 기저형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재구조화라 할 수가 있다. 또한 동일한 표면형에 대한 두 세대의 분석이 다르기 때문에 재분석에 의한

22) ㅃ 변칙의 활용형 /꺠위/에서 보이는 uwㅃ의 w는 선행 u의 원순성과 고음성의 중복에 의해 근대 이후 탈락하는 경향이 강하였기 때문에 /꺠우/ 또는 다시 활용화된 /꺠/로 나타난다(拙稿, 1999 참조). 이 /꺠우~꺠:/가 후음말음으로 재분석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재분석 이후 평준화에 의한 ‘꺠우’, ‘꺠’, ‘꺠’으로의 재구조화도 일어난다.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요인 즉 음변화가 개입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2단계의 공시 문법과 3단계의 공시 문법이 ㅁ의 존재 여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처럼 공시 문법의 변화에 의해 이전과는 달리 분석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재분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음변화라는 요인을 제거하고 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재분석이란 전 세대와 동일한 문법 내에서 동일한 분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달리 분석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시 문법이 다른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재구조화는 음변화에 의한 것이지 재분석에 의한 것으로 볼 수가 없다.²³⁾

한편 음운체계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음소배열 제약만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 원순모음화와 ‘프-(溲)’의 재구조화를 예로 하여 보자.



1단계는 脣子音과 ㄴ가 자유로이 연결되던 중세국어의 상태로서 표면형을 도출하기 위해 공시적 규칙인 — 탈락이 요구된다. 근대에 들어 원순모음화라는 통시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2단계 또는 2'단계로 변화를 겪게 되었는데, 2단계는 원순모음화가 공시적 규칙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역 또는 시기의 것으로서 순자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매개모음어미가 결합할 때에도 ‘값+으면→가푸면’과 같이 규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반면 2'단계는 그러한 규칙을 공시적으로 상정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기이다. 2단계는 생성문법의 설명과 같이 음변화가 공시적 규칙의 첨가로 귀결된 상태이며 다시 이 규칙이 소실되어 2'단계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형태소 내부에만 원순모음화가 적용된 2'단계에서 규칙이 형태소 경계에까지 확대된 이후에 2단계로 변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23) 拙稿(2001)에서는 ‘ㄱ, ㆁ’으로의 변화가 재분석에 의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는 (12)와 같은 과정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음변화와 활용형의 분석에 의해 ‘ㄱ/구우’로 재구조화된 상태에서 다시 변화를 겪은 것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문헌에 ‘ㄱ, 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설명이 더 나올 것이다. (12)의 분석 ㉒, ㉓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의 변화에는 기저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1단계에서 2단계로의 변화, 2단계와 2'단계의 상호 변화에서는 기저형이 변화하였다. 우선 전자의 경우 두 단계가 도출에 관여하는 규칙이 — 탈락으로 동일하고, 공시적 규칙으로서의 원소모음화가 없으며 순자음과 —의 연쇄를 막는 음소연결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공시 문법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표면형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재분석에 의한 설명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반면 2단계와 2'단계의 상호 변화는 표면형은 동일하기는 하지만 공시적 규칙의 有無라는 점에서 공시 문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역시 재분석에 의해 설명할 수가 없다.

이처럼 음변화가 (12)처럼 음운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든 (13)과 같이 음운체계는 그대로이되 음소연결제약 및 공시적 규칙에 변화를 가져오든,²⁴⁾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의 공시 문법이 다르다는 점은 새로운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르게 하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재분석이라 할 수가 없다.

5.4. 기타

이상의 세 가지 조건은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가 모두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 밖에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가 보이는 여타 성격 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첫째, 재분석될 활용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구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拙稿(2001)에서 논의된 ‘고으-(烹)>고:’, ‘쏘-(射)’, ‘보-(見)’에서 후음말음으로의 재구조화의 경우, ‘고:→공~고ㅎ’는 다수 지역, ‘쏘:→쑹~쏘ㅎ’는 소수 지역에서 보이고 ‘보:→봉~보ㅎ’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14) 가. 고으고~고:고	<u>고으니~고:니</u>	<u>고아</u>
나. 쏘:고	<u>쏘:니</u>	<u>쏘아</u>
다. 보고	보니	<u>보아</u>

이상의 활용형 중 모음어미 결합형은 모두 후음말음으로 재분석이 가능하지만, 매개모음어미 결합형의 경우, /고으니~고:니/가 가장 자연스럽게 후음말음으로 분석이 가능할 뿐이다. /쏘:니/는 임의의 중간 과정 /^x쏘으니/를 머릿속에 두지 않고서는 후음말음으로 재분석하기 어려우며, /보니/는 단음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재분석될 활용형의 차이가 재구조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²⁵⁾

24) 최명숙(1993)에서는 음운변화에 의한 재구조화와 (통시적) 음운과정에 의한 재구조화를 구분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러지 않았다. 둘 모두 결국은 순수히 음운론적인 원인에 의한 음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25) 물론 ‘따르-(從)⇒딸’과 같이 모음어미 결합형단의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도 있을 수 있지만 예가 매우 드물다.

둘째로 재분석에 別途의 目的이 있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고려해 보자. 이전 세대와 동일한 공시 문법으로 동일한 분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분석하는데에는 원칙적으로 특별한 목적이 있을 수가 없다.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 즉 전 세대의 발화를 듣고 자신의 문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지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석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배주채(1998, p. 87)에서 ‘쉬⇒서끄’에 대해 “어간을 분명히하기 위해” 재분석하였다는 서술은 다분히 再考의 여지가 있다.

자음어미와의 결합에서 어간말음인 ㄱ이 ㄱ으로 실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한 재구조화가 있었다는 설명은, 역으로 어간말음이 ㄱ, ㄷ, ㅂ인 경우는 자음어미와의 결합에서도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재구조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일면 타당해 보이기는 하지만, 만일 어간 말음인 ㄱ, ㄷ, ㅂ 등인 어간들이 — 말음으로 재구조화를 겪지 않은 이유가 다른 데에 있다면, ‘쉬⇒서끄’에 대해 굳이 어간을 분명히하기 위함이라는 별도의 목적을 두지 않아도 될 것이다.

본고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하나의 가능성으로 用言語幹構造條件(verb stem structure condition)을 상정해 볼 수는 없을 까 싶다. 즉 形態素構造條件(morpheme structure condition)의 하위 부류로서, 어떠한 기저 음운구조를 지닌 용언 어간은 많은 반면 어떠한 용언 어간 기저형은 그 수가 매우 적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인식이 언어사용자에게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언어 변화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⁶⁾

주지하듯 —로 끝나는 용언 어간은 극소수의 르 정칙 어간과 다중 기저를 갖는 르 변칙 어간을 제외하면 거의 다 —에 선행하는 음이 경음이거나 격음이다(예. ㄱ-, ㅌ-, ㅆ-, ㅋ-, ㅌ-, ㅂㅅ-, 아ㅌ-, 등). 즉 — 말음 어간의 초성은 대체로 경음이나 격음이라는 인식 즉 용언어간구조조건이 ‘딱-, 받-, 잡-’ 등이 ‘머그-, 바드-, 자브-’로의 변화를 저지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없지만은 않은 것이다. 아직 이에 대한 적극적 논의를 펼 수 있는 단계도 아니며, 유아어나 제주도의 젊은층(정승철, p. 25)에서 그러한 어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재분석 자체에 어떠한 목적을 부여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여타 제반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6. 결 론

언어 현상을 서술함에 있어서 일관된 태도를 견지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현재까지의 언어학사에서 제안된 여러 이론들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상에서 생성문법이라는 틀과 그 기본적인 서술

26) 영어의 ‘internet’을 //인터넷//이 아닌 //인터넷//으로 기억하는 것은 체인의 경우 말음이 ㄷ, ㅅ 등 ㅅ 이외의 [-grave]의 음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로 여겨진다.

도구인 기저형과 규칙을 전제로 하여 언어 변화의 한 단면을 서술하는 방법론을 확립해 보고자 하였다.

물론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것은 없지만, 지금껏 재구조화 자체가 그러하였듯 언어 변화의 서술에서 저만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그리고 임의적으로 원용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음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고 그렇다고 일반적인 유추와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될 뿐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엄정하게 정밀화된 적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방법론을 세우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이 그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추론 과정인 不明推論이었다. 창의적 사고 과정의 논리적 기반인 불명추론이 용언 어간의 변화, 엄밀히는 새로운 세대에 의한 어간의 창조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불명추론을 재분석의 논리적 기반으로 삼는다고 하여도 여타 추론 과정과는 달리 불명확성을 그 주된 성격으로 하는 만큼, 언어 변화 서술의 정밀한 도구로 삼기에는 다소 느슨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비록 약간의 예외를 남긴다 하더라도 방법론을 좁고 정밀하게 개념 규정을 하지 않는다면 마치 과거에 유추가 그러했던 것처럼 때로는 너무 강력하고 동시에 때로는 너무 유약한 설명이 되어 버릴 수가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들었다.

1. 재분석이 공시적 규칙 또는 규칙성에 의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2. 재분석되는 단위는 형태소이다.
3. 변화 전후의 공시 문법은 동일하다. 즉 재분석되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이들이 재분석에 의한 재구조화의 개념을 얼마나 충실히 규정한 것인지, 혹 이에 벗어나는 예외적인 경우는 없는지, 과연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규정된 사고과정을 통해 언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등은 차차 연구가 진행되며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다만 엄밀하게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설명 방법을 그대로 임의로 원용해 가며 언어 변화를 서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참 고 문 헌

- 곽충구. (1994). 계합 내에서의 단일화에 의한 어간 재구조화. 남천박갑수선생 화갑 기념논문집 국어학 연구. 태학사.
- 김 현. (1999). 모음간 w 탈락과 w 삽입의 역사적 고찰. 애산학보 23.
- 김 현. (2001). 활용형의 재분석에 의한 용언 어간 재구조화. 국어학 37.
- 방언연구회 편. (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 배주채. (1991). 유추변화는 문법변화인가. 주시경학보 7.
- 배주채. (1998). 고흥방언 음운론. 태학사.

- 임석규. (1999). 영주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국어연구* 160.
- 장윤희. (2002). 현대국어 르-말음 용언의 형태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제143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 정승철. (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국어연구* 84.
- 정승철. (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채현식. (2000). 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명옥. (1982). 월성지역어의 음운론. *영남대학교출판부*.
- 최명옥. (1985). 변칙동사의 음운현상에 대하여. *국어학* 14.
- 최명옥. (1992). 경상북도의 방언지리학 : 부사형어미 '-아X'의 모음조화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73.
- 최명옥. (1993). 어간의 재구조화와 교체형의 단일화 방향. *성곡논총* 24.
- 허 용. (1965). *개고신판 국어음운학*. 정음사.
- Andersen, H. (1969). A study in diachronic morphophonemics. *Language* 45.
- Andersen, H. (1973). Abductive and deductive change. *Language* 49.
- Andersen, H. (1974). Towards a typology of change. In J. M. Anderson, & C. Jones, eds., *Historical Linguistics II*.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Anderson, J. M. and C. Jones. eds. (1974) *Historical Linguistics II*. North-Holland Publishing Company.
- Anttila, R. (1977). *Analogy*. Mouton.
- Bynon, T. (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ldsmith, J. (1993). Harmonic phonology. In J. Goldsmith, ed., *The Last Phonological Rul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le, K. (1973). Deep-surface canonical disparities in relation to analysis and change. In Sebeok, eds.,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Vol. 11*. Mouton.
- Halle, M. (1962).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Word* 18.
- Hock, H. H. (1986). *Principles of Historical Linguistics*. Mouton de Gruyter.
- Hudson, G. (1980). Automatic alternations in non-transformational phonology. *Language* 56.
- Jakobson, O. (1931). Principles of historical phonology. Translated by A.R. Keiler and reprinted in P. Baldi and R.N. Werth, eds., 1978, *Readings in Historical Phonolog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Jeffers, R. J. (1974). On the notion 'explanation' in historical linguistics. In Anderson and Jones, eds.
- Jeffers, R. J. (1977). Morphological reanalysis and analogy. *Lingua* 41.

- Jespersen, O. (1922). *Language*. Norton.
- King, R. 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Prentice Hall Inc.
- Kiparsky, P. (1965). *Phological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Kiparsky, P. (1968). Linguistic universals and linguistic change. In E. Bach & R.T. Harms, eds.,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Holt. Reprinted in Kiparsky (1982).
- Kiparsky, P. (1970). Historical linguistics. In J. Lyons, ed., *New Horizons in Linguistics*. Reprinted in Kiparsky (1982).
- Kiparsky, P. (1971). Historical linguistics. In W. O. Dingwall, ed., *A Survey of Linguistic Science*. University of Maryland. Reprinted in Kiparsky (1982).
- Kiparsky, P. (1974). Remarks on analogical change. In Anderson and Jones, eds.
- Kiparsky, P. (1982). *Explanation in Phonology*. Foris Publication.
- McMahon, A. (1994). *Understand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김 현
252-8520

日本國神奈川県藤澤市遠藤 5322

전자우편 : kimhyun@sfc.keio.ac.jp
keio2000@hanmail.net

접수일자 : 2002. 5. 30
수정본 접수 : 2002. 7. 23
게재결정 : 2002. 8. 24